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19호 2003년 10월 15일 발행인 김용덕

▶ 訃 告

일본자료센터 소장으로 계시던 김장권 교수님께서 지난 9월 15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본센터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금번 뉴스레터 제19호를 특집호로 발간합니다.

故김장권 교수님 약력

1980. 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1989. 3 일본 筑波大学大学院歴史人類学科 박사

※ 박사학위 논문 「近代日本地方自治の構造と性格：日本近代化の社会的基盤に対する研究」：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national integration' 개념을 중심으로 비교역사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논문. 일본국가의 근대화정책과 지방의 중간지도자들의 근대화 추진행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본 근대화의 본질과 문제점을 파악하려 함.

▶ 경력 및 연구활동

1990-1992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지역연구실)
1992-1996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교수
1996-2000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
숭실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2000-2002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조교수
200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장

▶ 가입학회

- 한국정치학회
- 한국국제정치학회
- 현대일본학회
- 한국세계지역학회

▶ 주요연구업적

〈단행본〉

- 『21세기 일본의 국가개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6 (공저)
- 『근현대일본정치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0. 2 (공저)
- 『현대일본정치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9. 7 (공저)
-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1998 (공저)
- 『일본정치의 이해(일본연구총서 2)』, 시사일본어사, 1998 (공저)
- 『일본, 일본학』, 도서출판 오름, 1994 (공저)
- 『국민국가형성과 지방정치: 일본군국주의의 사회적 기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21세기 일본의 위상』, 법문사, 1993(공저) 외 다수

▶ 학술논문

-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있어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구조」, 아세아연구 43권 1호, 2000, 7.
- 「일본의 국가개혁과 시민사회」, 일본연구논총 제 12집, 2000, 2.
- 「일본시민사회의 구조 1968-1999: 국가, 시장, 공동체의 상호관계구조에 대한 거시역사적 조망」, 한국정치학보 33집 2호, 1999.
- 「Beyond the Borders-Local Initiative of Korea, Japan, and China Towards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한국정치연구 8집, 1999.
-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평화논총 2권 1/2호, 1998.

- 「동아시아의 국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학평론 제4호, 1998.
- 「일본의 세계화와 분권화 개혁」,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1997 외 다수

▶ 연구보고서

- 「지역갈등의 본질과 그 해소방안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교육부, 2000.
- 「세계화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1998.
- 「동아시아 발전과 일본」, Japan Foundation, 1994-1995.
- 「현대일본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포항제철, 1990-1991 외 다수

▶ 弔 詞

哀悼一金長權さん

金長權さんの訃報に驚き、いまだその死を受け入れられません。

金さんとの出会いは筑波大学に留学してきたときです。留学は、当時の韓国ではいまだ十分に理解されていない日本研究、とくに日本近現代史を学ぶことで、韓国現代化の課題とは何かを問い質すことでした。

ヘーゲル哲学を身につけたヘーゲリアンとしての金さんは、きわめて弁証法的に日本近代の構造を国家と民衆の相剋として把握し、分析することに努めました。私の演習では、常に鋭い問題提起をなし、受講生をリードしました。あなたとの対話は、院生にものたりなさを感じていた私にとり、最も知的刺激に富んだ一刻でした。

金長權さん、あなたの博士論文『近代日本地方自治の構造と性格』は、日本の地方自治を解析することで、韓国にいかなる地方制度を構築するかを考察しようとの問題意識で書かれたもので、刀水書房より刊行され、学界で高い評価を受けました。帰国後は、現代日本を分析できる一人として、多彩な活動をなし、日本の研究者と積極的に交わり、日本と韓国の学問的交流の場をきづくことに多大な努力をされました。

いま私は、1993年秋に国際交流基金が主催した大韓民国巡回セミナーの講師として派遣され、「東アジアの枠組から見た日本近代史の発展過程について」の講演をしたとき、ソウル・春川の地に君が同行し、みごとな通訳をしてくれた日々が思い出しています。またご家族同伴で来

日した時、私たち夫妻ともった楽しい一刻がよみがえります。

金さん、あなたの死はあまりにも早く、「神は最も愛した者を召される」にしても、過酷です。心みだれ、あなたをかたる言葉を失っています。あなたの死の重さにうちのめされています。奥様はじめご家族の悲しみを思うと、慰めの言葉ありません。

近き日にあなたの墓前において弔し方をかたり

たく思います。どうか奥様はじめご家族の上大いなる慰めと平安が訪れることを祈ります。

金長権さん、さようなら。あなたの笑顔が脳裡をよぎります。全力で己が人生を駆けぬけた金長権さんに栄光あれ。

2003年9月16日

筑波大学名誉教授/北海学院大学教授
大濱徹也

고 김장권 교수님 추도사

“김장권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갑자기 날아든 형님의 부음소식에 너무도 어이가 없어, 오히려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조차 형이 오래 중병과 싸우면서 생의 기로에 서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남에게 꽤 끼치기 싫어하는 형의 결백스런 마음이야 진작에 잘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사를 앞에 두고도 아무 소식도 없이 이렇게 훌쩍 떠나시다니요. 가슴이 무너져내리는 슬픔과 함께 아쉬움과 야속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77년 관악의 교정에서 2년 선배인 형을 처음 만났지요. 형은 “제 포부가 무엇인지” 물으면서, 뭐라 답하는 제게 “포부가 그렇게 작아서 되겠나” 일침을 던졌지요. 과연 형은 사회개혁과 민족통일을 흉중에 품고, 민족분단의 원인을 발본적으로 탐구하는 젊은 대학생-연구자였습니다. 해방3년의 정치사를 대상으로 거의 박사급 수준으로 써냈던 방대하고 치밀한 학사논문은 당시의 대학가에서 <교본>처럼 읽혔습니다. 대학시절 함께했던 대학문화연구회의 세미나 장에서 격정으로 형클어진 논의의 가락을 명쾌하게 바로잡는 그 명쾌함. 술한 밤

을 새우며 민족의 현재와 장래를 논하던 그 깊은 애국지정. 대학에서의 공부라는 게 녹슨 연장으로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지적 무기를 절차탁마할 것임을 일깨워주던 그 지성. 형의 모습은 저희에게 참으로 닮고 싶은 지성인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또한 세속잡사에 부대끼지 않고 때로는 선승같은 도인의 모습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곤 했습니다. 남이 곤히 잠든 새벽 서너시에 일찌감치 일어나 청소하고 체조하고 맑은 마음으로 공부하던 습관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시절 배고프면 형을 찾아나섰고, 마음이 괴로울 땐 밤늦게라도 형의 방문을 두드리면, 싱긋이 웃으며 민생고도 해결해주고 정신적 양식도 채워주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치학과 대학원 시절, 부러움 가득 사면서 이진아 누님과 일찍 결혼하시고, 정민이와 경민이를 잘 낳아 정성껏 키웠습니다. 조교생활을 하면서 어린 정민이랑 잔디밭에 재미있게 놀면서도 한손에는 책을 놓치지 않고 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자상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아빠된 기쁨이 어떠한지 그때 젊은 아빠였던 형의 모습을 통해 배웠습니다.

일본유학을 떠나기 전, 과연 일본가서 무엇을 공부

할까 하고 고민하시면서, 100여 권의 일본책을 독파한 뒤, 일본의 지방자치를 연구 주제로 삼아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웬 시시한 지방자치냐고 묻는 후배에게, 일본사의 역동적 변화를 중앙이 아닌 지방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앞으로 도래할 한국의 지방자치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도 지방자치 연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쓰쿠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귀국한 뒤 <지방자치>와 <공공정책>의 연구집단을 이끌어가면서, 건실한 <일본학>의 토대를 구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적도 대단하셨습니다. 진짜 도약을 위한 지적 축적을 완성한 단계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28년간의 학문적 온축을 토대로 그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할 이 나이에 갑자기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다니, 안타까움과 상실감에 가슴이 답답하고 공허해질 따름입니다.

형수님과 그토록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이끌었는데, 그 사랑하던 형수와 자녀와 더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을 형의 마음에 가슴이 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음조차 누가 되지 않겠다며 깨끗이 화장해 달라고 하셨다는 유언을 전해 듣습니다. 형의 그 결곡함이 형의 안부 묻기를 소홀히 한 저희들의 게으름과 대조되면서, 우리들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형을 떠나보낼 시간입니다. 육신은 그를 만든 흙으로 돌아가되, 영혼은 그를 지으신 주님의 품으로 귀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형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은 형의 몸을 떠나보내지만, 형과 지낸 그 소중한 추억은 평생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에 내일부터는 억지로라도 슬픔을 거두겠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생각해 보니, 이렇듯 한없이 좋은 형과 몇십년 동안 함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좋은 남편, 더없이 좋은 아빠와 함께 몇십년을 지낼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고인의 생전 가르침을 삶의 뜻대로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하셔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러나, 당분간 저희들은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장권이 형!”

2003년 9월 18일

후배 한인섭 올림

▶일본연구동향

“하나의 일본”에서 “여러 개의 일본”으로?

— 최근 일본연구에서 보이는 새로운 일본상의 구축

권숙인(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소니사가 3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앞으로 일본에 대한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소위 ‘일본적 경영문화’를 구성하는 삼보(三寶) 중 하나로 찬양되

었던 종신고용제는 이제 ‘한 때의 신화’로 전락한 셈인가. 이미 199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일본사회의 일련의 변화들에 의해 그동안 (주로 고도성장기를 통해)형성된 일본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조금씩 부식되어 왔지만, 이번 소니 관련 뉴스도 분명 일본

사회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촉구하는 적지 않은 충격 중 하나일 것이다. 기실 90년대 이후 일본을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들 사이엔 하나의 ‘연구대상’으로서 일본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왔고, 그런 모색 속에선 이미 80년대 이래 꾸준히 진행되었던 ‘하나의 일본’ 혹은 ‘전체로서의 일본’에 대한 ‘해체’가 보다 근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 국내에서 행해지는 최근의 연구동향을 ‘일본상’의 변화와 구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을 연구하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분명히 해 온 점은 일본은 항상 다민족적·다문화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사회에선 동일한 민족,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일본인의 동질성’이라는 명제가 널리 유포되었고, 일본 내셔널리즘의 근간이 되어 왔다. ‘단일한 일본상’의 기원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에도시대 말기 국학에서 메이지 초기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혹은 과도한 서구화에 대한 메이지 후반기의 반동에서, 혹은 패전 직후의 정치적 상황에서 찾기도 한다. 정확한 계보학적 기원을 어디에서 찾건 간에 분명한 것은, 동질성에 기초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는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통해 대중적으로도 널리 확산되고 하나의 확고한 믿음으로 유포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니혼진론’(日本人論)으로 대표되는 담론적 움직임은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1990년대 초두 이래 일본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랄만한 신호 중 하나는 일본을 구성하는 다양성에 대한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다문화주의”, “이문화 이해”, “다문화공생”, “공생사회” 등의 용어와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일본의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을 다룬 저작물들이 축적되면서 학계의 논의나 대중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니혼진론의 열광적 소비와 일본문화 특수성론이 호소력을 발휘하던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1980년대 초두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흥미로운 분석적 과제를 제시한다. 일본을 구성하는 ‘다양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편의상 다음의 몇 갈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1. 일본문화의 ‘내재적’ 다양성 연구

일본문화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재)발견하고 드러내어, ‘단일하고 동질적인 일본’이란 관념과 이미지의 재고를 촉구하는 여러 갈래의 연구와 주장들을 지칭한다. 일본열도의 다양한 구성을 환기시키는 논의는 물론 완전히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다만 중심부의 논리에 기초한 ‘단일한 일본’의 관념을 비판해 온 기존의 연구들은 어떤 주도적인 흐름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주로 특정학자의 개별연구 형태로 간헐적으로 제시되어져 왔다. 반면에, 1990년대 이후 일본문화에 대한 논의에선 일본문화의 내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강조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경향’을 형성한다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분과학문을 배경으로 하지만 주로 민속학자나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의 작업이 두드러진다.

이런 흐름에서 아마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 중 하나로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한국에도 번역·소개된 최근의 저작¹에서 일본사회의 중심과 주변의 역학관계, 특히 공식적 지식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훨씬 다문화적이고 탈중심적인 일본의 모습을 그려낸다. 사실 일본사회의 ‘주변’에 대한 연구는 아미노가 상당히 오랫동안 해 온 것으로, 그는 ‘아미노 사관’이라 칭해질 정도로 독특한 자신의 입장에서 일본사 통설과는 다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연구와 주장이 ‘새삼’ 주목받고 좀 ‘특이한’ 한 학자의 연구가 아니라 학계의 한 경향 속에 위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리고 그 배경엔 일본 내부의 다양성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미노가 거듭 환기시키는 것은 하나의 국호로서 ‘일본국’이 이미 7세기 말 성립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열도 내부의 ‘실체’는 어떤 통일된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유동성과 차이, 이질성과 다양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언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1 아미노 요시히코, 2003. 『일본이란 무엇인가』, 박훈 역, 창작과 비평사.

관습과 관행, ‘인종적’ 구성, 생계경제, 대외관계 등에서 일본열도가 내포해 온 커다란 지역차를 드러내면서, “일본은 단일민족·단일국가”라는 주장이나 특히 ‘일본국’이 바다를 국경으로 다른 지역과 분리된 “고립된 섬나라”라는 오늘날 일본인에게 널리 침투된 일본상은 “완전한 허상”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커다란 차이와 계속되어 온 분열과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이란 국명이 유지되어 온 것은 오로지 역사적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내부의 지역차는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현격한 것으로, 역사적 조건(예컨대 그는 몽고침략이나 전후 점령 등을 가정한다)이 조금만 달랐더라도 두개 이상의 ‘민족’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역사학의 필수과제로 각 지역의 개성적 역사를 명확히 규명하는 지역사 연구를 제안한다. 실제 지역사 연구는 현재 일본 역사학의 중요 흐름 중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

어쨌든 오랫동안 ‘주변에서 바라 본 일본역사’ 연구를 계속해 온 아미노가 그동안의 연구를 총괄하는 의미를 갖는 이 책에서, 근현대 일본에 내재한 모순과 왜곡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은 의미심장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통해 인류 최초로 체험한 피폭, 미나마타 병으로 상징되는 공해 문제,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등에 대한 성찰에서 ‘일본론’의 서두를 꼬집어 내고 있는 그의 시도는 고도성장기를 풍미했던 많은 니혼진론 저작들과 좋은 대조를 보이며, 그런 점에서 ‘장기불황 속의 일본론’으로 읽힐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듯하다.

일본문화의 내적 다양성에 대해선 인류학이나 민족학, ‘문명학’ 등에서도 꾸준히 주장이 제기되어져 왔었다. 인류학자 소후에 다카오(祖父江孝男)는 일종의 ‘내적국민성론’에 상응하는 ‘현민성’(縣民性)이란 개념으로 일본의 각 지역사람들이 보이는 기질상의 차이와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지역차를 규명하고자 한 바 있으며,² 오바야시 타료(大林太良)는 20세기 초 문화인류학의 주요 개념적 도구였던 “문화영

역”의 개념을 활용하여 일본열도를 몇 개의 문화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생태, 민속, 생계경제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³ 마찬가지로 인류학자인 요네야마 토시나오(米山俊直)도 일본문화의 지역성을 강조하는 “소분지우주”(小盆地宇宙) 개념으로 일본열도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문화세계를 그려내고 있다.⁴

이들이 그려내는 일본문화의 모습은 ‘동질성’과 ‘단일성’의 원리에 충실한 대표적인 니혼진론 저작이자 그 장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카네 지에(中根千枝)의 일본론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다. 특히 요네야마 토시나오는 1970년대 이래 나카네 지에의 일본문화론을 꾸준히 비판해 온 학자로, 나카네가 말하는 수직적 원리에 기초한 단일사회론은 ‘일본’의 문화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는 관동지역의, 계층적으로는 엘리트 계층의 문화라고 상대화시키고, 관서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른 문화원리(예를 들어 수평성, 자발성, 복수의 집단에 귀속 등등)를 주장해 왔다. 위에 언급한 연구에서도 요네야마는 일본인의 사회문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라는 특징을 강조한 나머지 그 내부에 있는 풍부한 다양성을 등한시”해왔음을 비판하고, 그러한 인식은 “근대일본이 키워 온 커다란 ‘신화’”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이처럼 ‘동질성의 신화’와 ‘단일성의 논리’가 일본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지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내적 다양성과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런 신화의 허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작업들이 주로 개별 학자들의 연구 형태로 진행된 반면, 최근에 들어서는 일본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재)발견 작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력 출판사인 이와나미(岩波)출판사에서 최근 출간된 한 기획단행본⁵도 현재 담론의 한 중요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시

2 祖父江孝男. 1971. 〈縣民性〉. 中央公論社.

3 大林太良. 1990. 〈東と西 海と山: 日本の文化領域〉. 小學館.

4 米山俊直. 1989. 〈小盆地宇宙と日本文化〉. 岩波書店.

5 赤坂憲雄, 中村生雄, 原田信男, 三浦佑之編. 2002. 『日本を問いなおす』. 岩波書店.

해 준다. 이 책의 표지에는 “일본이란 무엇인가?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일본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며, 일본열도에 관련된 민족사적 경관을 새롭게 전개시키기 위해 “하나의 일본”에서 “여러 개의 일본”(いくつもの日本)으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전 7권의 시리즈가 기획된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내용은 일본문화의 중층성과 다양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역사학적, 민속·민족학적 주제를 망라한다. “일본열도의 인류사”, “에조와 아이누”, “에매한(ほかし)지역”, “오кина와” “식생과 민속” 등등 그 동안의 주류 논의에서 주변부로 치부되어 왔던 연구 영역들로 채워져 있다. 필진도 특정 분과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언어학, 문학, 사상사 등의 다양한 전공자들 참가하고 있다.⁶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동안 지배적이었던 일본상(像), 예를 들어 “단일민족국가론, 벼농사중심사론, 섬나라문화론” 등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다 중층적으로 구성된 일본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할 것이 촉구되고 있다.

2. 탈근대 탈국민국가론

근대역사학의 전제였던 국민국가·민족을 상대화하는 작업으로, 국민국가란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상 특정 시기에 특정조건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그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모습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국민국가를 상대화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최

근 수년 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근대일본의 국민/민족국가 만들기 과정이 갖는 작위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온 국민국가를 해체한다. 그리고 그 작업은 국민국가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온 ‘국민’과 ‘민족’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회의로 자연스럽게 귀결된다.

현재 국민국가비판 작업은 탈국민국가론의 리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의 지적처럼 “문학·언어학·문화인류학·사회학·정치학 등 다방면에 걸쳐 있고, 특히 역사학 부분에서는 근현대사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발표된 연구논문의 절반 이상이 국민국가 비판”⁷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적·담론적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이라는 존재성이 필연이 아니고 오히려 인공적이고 창출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국민국가는 근본적으로 상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니시카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와 ‘공동체’의 개념 자체도 비판의 도마에 올림으로써 “국민화의 회로”로부터 벗어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는 본래부터 잡종성과 복수성, 그리고 유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모리 요이치, 사카이 나오키, 강상중, 이연숙 등 좀 더 젊은 세대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은 각각의 ‘정치성’과 이론적 배경에 있어서는 다소간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니시카와가 말하는 국민국가 만들기의 “모듈성” 내지는 “회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의 상당수는

6 전제 7권으로 기획되어 있는 이 〈여러 개의 일본〉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 〈일본을 묻는다〉(“일본이란 무엇인가, 일본인이란 누구인가, ‘하나의 일본’에서 ‘여러 개의 일본’으로, 새로운 민족사적 경관을 연다”); II. 〈새로운 역사사〉(“풍부한 역사상을 창조해 내자. 문헌중심의 방법을 탈피하여, 물건이나 기술 등을 통해 드러나는 생활의 여러 양상을 중시해 본다”); III. 〈사람과 사물과 길과〉(“일본은 완결된 영역이 아니며, 지역도 폐쇄된 공간이 아니다. 그 교류의 역사와 실태를 분명히 한다”); IV. 〈여러가지의 생업〉(“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눈에 찔농사를 짓는 것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생업의 실태를 분명히 하고 그 민속의 특질을 탐구한다”); V. 〈배제의 시공을 넘어서〉(“이 열도에는 배제되어 온 사람들과 가족·집단이 존재한다. 일본사회의 내재한 차별구조의 본질을 밝힌다”); VI. 〈여성의 영역·남성의 영역〉(“일본사회에선 여성과 남성의 영역이 엄격히 구별되어 왔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일본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킨다”); VII. 〈신들이 있는 풍경〉(“다양한 신들과 종교와 더불어 살아 온 열도의 모습을 통해 시대에 따른 ‘성(聖)’과 ‘다른 세상’(異界)의 이미지의 변용을 규명한다”). 이러한 시도에는 분명, 일본민속학계에서 오랫동안 핵심적인 논쟁거리였던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의 소위 “일국민속학”(一國民俗學)의 극복이란 쟁점이 결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단 하나의 일본”을 추구한 야나기타 민속학의 극복 필요성을 주창한 최근의 저작 중 아카사카 노리오를 참조할 수 있다(赤坂憲雄, 2002).

7 西川長夫, 1998. 『國民國家論の射程あるいは〈國民〉という怪物について』. 柏書房.

일본사회의 현실적인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최근 십수년간 학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비판,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등의 지적 조류와 일정한 연관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구미학계의 일본연구에서 1990년대 초두 이래 본격화된 탈근대/탈식민 비판론자들의 연구, 예컨대 마사오 미요시(Masao Miyoshi), 해리 하루투니언(H.D. Harootunian), 나오키 사카이(Naoki Sakai), 다카시 후지타니(Takashi Fujitani), 매릴린 아이비(Marilyn Ivy),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 등을 포함한 해외논자들에게 의한 자극과 이들과의 지적 교류가 있음도 물론이다.

3. '내부의 국제화' 론

최근에 진행되는 일본사회의 현실적 변화를 근거로 다문화적 일본을 구상하는 입장으로, 특히 내부의 국제화와 이로 인한 다양성 증가의 양상, 그것이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에 대한 분석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사회 내의 이질적 에스닉(ethnic)집단에 대한 연구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물론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일본사회의 급속한 '내적 국제화'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사회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회학자 코마이 히로시(駒井 洋)는 전후 일본에서 단일민족주의가 중요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난민수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논리에 근거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지적한다. 현재 일본사회 내부의 '국제화' 양상에 대한 연구는 코마이 히로시, 미야지마 다카시(宮島 喬), 다나카 히로시(田中 宏), 가지타 다카미치(梶田孝道) 등 이 분야의 연구를 선도해 왔던 몇몇 학자들의 관심을 넘어서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커다란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련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출판계도 이런 양상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주요 출판사들이 '국제화'나 '다문화주의' 등을 핵심 개념으로 일본사회를 조망하는 기획물들을 내고 있거나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경대출판부가 7권의 시리즈로 2002년

부터 내기 시작한 한 기획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이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국제사회>란 주제의 이 기획물은 전 7권으로, 각각 <국제화하는 일본사회> <변용하는 일본사회와 문화> <국민국가는 어떻게 변화할까> <마이너리티와 사회구조> <글로벌화와 사회변동> <동아시아와 일본사회> <변모하는 '제3세계'와 국제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일본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1권과 2권의 주제들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정책" "외국인노동시장의 분기 논리" "일본의 기업과 외국인노동자·연수생" "세계도시로부터 글로벌시티로" "글로벌시티의 하층 마이너리티" "지역사회의 변용과 에스니시티" "일본의 국제화와 인도네시아 난민" "외국인의 정치참가" "뉴커머 외국인의 증가와 일본사회의 문화변용" "국제결혼에서 보이는 가족문제" "학교세계의 다문화화"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일본과 모국어" "취학과 그 좌절에 나타나는 문화자본과 동기의 문제"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사회문화공간과 교육문제" "에스닉·미디어와 그 역할" "정주외국인에 있어서 문화변동과 문화생성"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서도 드러나듯이 '내부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이전의 연구들이 일본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 존재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분석에 많이 치중되었다면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훨씬 세분화되고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 외에 닛케(日系)이민자 후손, 귀국자녀, 귀화자, 귀국한 잔류고아, 인도차이나 난민, 외국인 신부(新婦) 등등 일본 속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경계인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그동안 좁게 정의되어 왔던 '일본인'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부터, 혹은 현재 기획 중인 연구들이 완성되었을 때 우린 어떤 일본상을 추출해 내게 될 것인가? 그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혹은 일본연구자로서 그 재현작업에 동참해 왔던 모습과 어떻게 같고 다를 것인가? 현재 일본사회의 현실적인 변화만큼이나 흥미롭게 지켜볼 만하다.

▶일본관련 도서정보

(이하 정렬 순서는 간행 年月日 順에 따름. 같은 月일 경우 저자명의 가나다 順)

200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일본관계서적 출판 동향

고모리 요이치, 송태욱 譯,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2002년 7월)

‘식민지’ 상태로부터 해방된 지 50년이 넘게 지났어도 ‘식민지’였던 시대의 상처와 흔적을 여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그러한 상황을 ‘식민주의’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그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을 시도하려는 책. 저자는 타국을 ‘식민지화’했던 스스로의 과거가 그 땅의 타자들에게는 아직 ‘과거’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그 이유가 바로 ‘일본’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 나쓰메 소세키를 섬세하게 해독하며, 이 소설들이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이 뒤얹힌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며, 여기서 비롯된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는 텍스트로 재구성. 목차는 개국 전후의 식민지적 무의식, 식민지적 무의식에 대한 대항 담론, 패전 후의 식민지적 무의식, 상징 천황제와 식민지적 무의식으로 구성.

김창현, 『한일 소설 형성사: 자본이 이상을 몰아내다』(책세상문고/우리시대 066), 책세상(2002년 7월)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의해 문화적 정체성마저 거세당할 위기에 있는 동양, 비서구 사회의 이상을 찾기 위한 발판을 중세 경험으로부터 끌어오고자 하는 시도에서 집필한 책. 이러한 인식하에 저자는 서양을 받아들이기 바로 전으로 돌아가 한국과 일본의 중세인 조선 후기와 에도시대를 중심으로 소설 형성과정과 사회 전반의 문화적 흐름 등 문화사적인 접근을

통해, 보편화된 서양 중심의 역사관 해체를 위한 근거를 탐색. 목차는 제1장 ‘근대’라는 신화, ‘소설’이라는 미신, 제2장 중세를 살며 중세와 맞서기, 제3장 중세의 문화적 전복 대 상업화의 양상, 제4장 서구 문화의 수용과 오늘로 구성.

다다 미치타로, 김행원 譯, 『생활 속의 일본 문화』(한림신서 일본학총서 24), 소화(2002년 7월)

일본의 생활 속에 깊이 배어 있는 문화의 기원과 그 의미, 살아있는 미의식을 예리하게 통찰한 비교문화론.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지만, 가깝고도 먼 일본 문화의 특성을 저자는 서구 유럽과 비교함으로써 각 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명쾌하게 제시. 목차는 제1장 생활 속의 일본 문화, 제2장 일본인의 미의식(1), 제3장 일본인의 미의식(2), 제4장 변화가 속의 미, 제5장 일본어의 인간학으로 구성.

도널드 킨, 김유동 譯, 『메이지 천황(하): 베일에 싸인 일본 역사상 최고의 군주』, 다락원(2002년 7월)

미국의 대표적 일본문학자로 알려진 도널드 킨(Donald Keen)이 1995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잡지 『신조(新潮) 45』에 연재된 것을 정리한 것으로 상하권 총 1,200페이지가 넘는 대작(서장과 종장을 포함하여 64장으로 구성). 메이지 천황과 그가 이끈 근대화화의 과정을 서술. 기본적으로 전기의 형식을 띠고 있어 천황의 성격, 성장과정 및 교육과정 그리고 궁중생활 등이 그려지고 있으나, 그가 권력의 정점에서 일본을

이끌어 온 44년의 메이지사(明治史)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음으로 해서 단순한 전기의 차원을 극복. 일본 근대사는 물론 일본사와 맞물린 동아시아사를 풍부한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가며 자세히 서술.

이오키베 마코토, 『일본 외교 어제와 오늘』, 다락원 (2002년 7월)

일본 외교의 과거와 현재의 쟁점 분석. 목차는 서문 전후 일본 외교의 구도, 제1장 미국 점령 하 일본의 외교, 제2장 독립군의 조건: 1950년대의 일본 외교, 제3장 경제대국 외교의 원형: 1960년대의 일본 외교, 제4장 자립적 협조의 모색: 1970년대의 일본 외교, 제5장 국제국가의 사명과 고뇌: 1980년대 일본 외교, 종장 냉전 후의 일본 외교, 맺음말: 21세기를 향한 과제로 구성.

편집부 편, 『핵심 일본경제론』, 은하출판사(2002년 07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일본경제론의 핵심 요점사항을 서술.

한경구, 이토 아비토 공편, 『한일 사회조직의 비교』 (한일공동연구총서 5), 아연출판부(2002년 7월)

〈한일공동연구총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본적 인식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견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일공동연구포럼’의 연구성과를 모은 책.

‘조직과 개인’이라는 대주제 아래 가족, 기업, 촌락, 도시근린조직, 종교조직, 집단주의 문제 등을 취급. 수록 글의 순서는 일본사회의 조직과 개인: 임의결사를 중심으로(문옥표), 일본의 이에·친족의 특징과 그 문화적 함의: 한국사회의 비교 검토(권숙인), 일본의 촌락조직과 개인의 위상(홍성흡), 지역사회와 종교문화의 현황: 나카무라시의 종교적 거점을 중심으로(김양주), 일본 근대조직의 발전과 한계:

‘이에’형 조직과 운면공동체(한경구), 한국의 임의참가조직: 지방 출신자의 결사를 중심으로(이토 아비토), 도시화 속의 친족집단: 대구시의 사례검토(시마 무츠히코), 목사와 장로를 둘러싼 갈등: 한국교회의 분쟁(히데무라 겐지), 한국 지역사회의 지연성과 공동성: 남원 지역의 사례에서(혼다 히로시), 베트남 거울을 통해 본 한일의 사회조직(수에나리 미치오)로 구성.

공의식 외,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책사랑 (2002년 8월)

2000년부터 2001년에 걸쳐 부산민주공원에서 민주주의 사회연구소가 주최한 동명의 시민강좌의 강연 내용을 모아서 정리한 책. 21세기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통일속에서의 주변 강국, 세계화·개방화 속의 문화 대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을 고려, 일본 우경화와 재일한국인, 어업협정과 독도, 한일간 한자 정책 등 한·일간 현안문제와 일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록. 아시아 맹주를 꿈꾸는 일본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모색. 목차는 제1장 일본 유학은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제2장 일본의 무사도와 그 현대적 의미, 제3장 일본의 신군국주의와 우경화, 제4장 일본 내셔널리즘과 상징천황제, 제5장 일본의 경제변화와 여성노동, 제6장 일본과 오키나와, 제7장 재일한국인 참정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제8장 어업협정과 독도 영토권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9장 한일간 한자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구성.

이시와타리 신이치로, 안희탁 譯, 『백제에서 건너간 일본 천황』, 지식여행(2002년 8월)

일본 천황가와 백제와의 관계를 논한 책. 일본이 고대사 조작과 일본서기의 허구성도 지적. 목차로는 제1장 초대 대왕인 오우진 천황, 제2장 고분인 시조를 찾다, 제3장 콘다산 고분의 실제 연대를 찾다, 제4장 가야계 왜왕조의 성립, 제5장 오우진 천황과 왜왕부, 제6장 백제계 왜왕조의 성립으로 구성. 일본 천

황 연대표 수록.

노성한, 『일본신화의 연구』(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2), 보고서(2002년 9월)

이자나미의 죽음신화를 비롯하여 황천국의 방문신화, 삼귀자의 탄생신화, 이즈모와 휴우가의 왕권신화, 이즈모와 니기하야히의 국토양도신화, 신공황후 전승과 식민지 교육, 대마도의 신공황후전승, 대마도의 천도 신화, 미야자키현의 백제왕족신화전승 등에 대해 취급.

야스마루 오시오, 이원범 譯,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변혁』(한림신서 일본학총서 67), 소화(2002년 9월)

일본 근대국가의 출발점이 되었던 메이지 유신의 역사적 의미를 신불분리(神佛分離) 사건을 통하여 재해석. 근대 천황제 국가의 독선적인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카리스마로 민중을 지배하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설명. 따라서 새로운 국가권력이 만들어 낸 전근대성과 우매한 민중의 구습으로 간주되었던 전통사회의 다양한 문화 창조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천황제 국가의 실패원인을 지적. 목차는 제1장 막번제와 종교, 제2장 발단, 제3장 폐불 해석의 전개, 제4장 신도 국교주의의 전개, 제5장 종교 생활의 개편, 제6장 대교원체제에서 '신앙의 자유'로 구성.

장용덕, 『한일 국가기구 비교연구』, 대영문화사(2002년 9월)

개인주의적 시각, 엘리트론의 시각, 자본주의적 시각, 다원주의적 시각 네 가지 측면에서 한일 국가기구를 비교 연구. 각각의 시각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국가 기구에 어떤 문제점과 특성이 있는 지를 비교 제시.

조명철 등, 『일본인의 선택』, 다른세상(2002년 9월)

일본의 근대화 과정,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적 정서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책. 풍부한 사진, 그림, 삽화의 시각자료를 곁들여 이해를 도움. 목차는 제1장 일본인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얻었는가, 제2장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인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제3장 일본인 특유의 정서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로 구성.

구태훈, 『일본역사탐구』, 태학사(2002년 10월)

각 시대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테마를 선별하여 그것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형식 채택.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면서 각 시대별로 총체적인 역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선정한 39가지의 테마로 배열.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일본의 고대국가가 어떠한 역사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일본인의 정신세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불교의 전래와 발전 등을 고찰한 8개의 테마를 배열. 제2부에서는 천황의 권력과 쇼군의 권력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무가사회의 구조를 무사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이어 이 시대를 살다간 戰國다이묘들의 시대정신을 고찰함으로써 오늘의 일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검토.

제3부에서는 일본사회를 크게 변화시킨 서양인과 일본인의 만남에 주목하고, 이어 분열된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에도막부의 쇼군권력을 주목. 특히 이 시대의 조난이라는 상인계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민문화를 육성하여 가는 과정을 살피면서 일본의 독특한 학문인 국학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서양의 도전과 일본의 대응을 통하여 일본근대화의 과정을 검토. 제4부는 격동의 시기로, 여기에서는 근대국가로 성장하면서 중앙집권적인 권력기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피면서 조선과의 문제도 언급.

김화경, 『일본의 신화』(서남동양학술총서 19), 문학과 지성사(2002년 10월)

일본의 신화와 한국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의도로 저술. 일본 신화체계에서는 천신과 지신이 두드러진 대립과 갈등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본에서는 지신계 신화는 일본 원주민이 가졌던 것이고 천신계 신화는 내륙 아시아에서 한반도를 거쳐 들어간 민족이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설명. 저자는 그들이 기층 문화라고 하는 지신계 신화 역시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 하나의 가설을 제시. 즉 지신계인 이즈모계 신화가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 신라를 통해서 이즈모 지역으로 들어간 집단이 가졌던 것으로 설명. 이러한 가설의 논리적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한일 양국 및 중국 각 민족의 문헌신화와 구전신화를 매우 꼼꼼히 비교분석. 목차로는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신화의 분류 체계, 제3장 이즈모계 신화, 제4장 다카마노하라계 신화, 제5장 결론과 전망으로 구성.

니토베 이나조, 심우성 譯, 『무사도란 무엇인가: 일본정신의 뿌리』(동문선 현대신서 130), 동문선(2002년 10월)

무사도의 근원을 찾아 의(義)·용(勇)·인(仁)·예(禮)·성(誠)에 대해 살피며, 무사는 이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연마했는가를 제시. '사는 용기, 죽는 용기'의 장에서는 할복(割腹)을 의식 전례로 들면서 '야마토 다마시'가 바로 일본 민족의 '아름다운 이상'임을 강조하고, 무사도의 유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시로 마무리. 총 17장으로 구성.

루스 베네딕트, 서정완 譯, 『일본인의 행동패턴』(한림신서 일본학총서 57), 소학(2002년 10월)

문화인류학에 의거하여 작성된 일본문화 탐구서 『국화와 칼』의 원형으로 전시중에 작성되어 미국 국무성에 보고된 바 있는 저서. '義理', '恩' 등을 일본

인 특유의 윤리기준으로 보고,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정체를 밝히고자 시도. 목차로는 제1장 일본인은 숙명론자인가, 제2장 일본인의 책무체계, 제3장 일본인의 자기단련, 제4장 성실, 제5장 위험한 줄타기로 구성.

이연숙, 『한일고대문학비교연구』, 박이정출판사(2002년 10월)

한일 고대 문학에 대해 비교 연구한 책. 만연집 내용분석 및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 대한 고찰과 누에 유래담에 관한 고찰 제시. 목차는 제1장 한일 고대시가 장르론, 제2장 한일 고대시가 소재론, 제3장 한일 비단문화 교류론으로 구성.

편집부 편, 『해법 없는 일본경제가 주는 교훈』, 한국경제연구원(2002년 10월)

일본 경제에 대한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걸친 분석과 전망. 본론의 목차는 제2장 일본: 과거와 현재(자산가격 인플레이션 조장/금융구조조정 지연/기업경쟁력의 약화/구조적인 문제), 제3장 일본: 미래(기존의 장기전망/향후 성장제한 요인), 제4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경제환경 안정의 중요성/경제유연성 증대/잠재성장능력 확충/정치제도 건전화/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 구성.

강길운, 『한일고대관계사의 쟁점』, 한국문화사(2002년 11월)

왜국은 가락국의 분국이었고, 가락국이 망한 뒤에는 백제의 분국이였다고 주장. 임나일본부, 광개토왕비문, 이소노가미신궁의 칠지도 등 한일 고대관계사의 쟁점을 비교 어학적 방법을 곁들여 설명. 부록으로 광개토대왕능비문의 탁본 영인을 수록.

미요시 도오루, 이혁재 譯, 『사전(史傳) 이토 히로부미』, 다락원(2002년 11월)

요미우리 신문 기자 출신인 저자가 이토의 수기, 편지, 공문서, 전기, 발언록 등 철저히 사실을 토대로 재구성한 책. 안의사를 체포한 러시아병사들의 이름까지 명기할 정도로 꼼꼼한 서술. 일기·서한 등 이토가 남긴 자료를 이용한 사(史)와 이토가 주위 인사와 나눈 대화를 다룬 전(傳) 모두를 이용했다는 뜻에서 평전이 아닌 사전(史傳)이라고 했는데 메이지시대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등장.

송현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문학연구』(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4), 보고사(2002년 11월)

아쿠타가와와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 인간 아쿠타가와와 그의 문학세계에 초점을 맞춰 설명. 목차는 제1장 인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제2장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여성관, 제3장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문학배경, 제4장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역사소설, 제5장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만년 사상으로 구성.

이면우, 『정치 엘리트 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2002년 11월)

3명의 집필진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정치구도와 지도자에 대해 연구한 성과를 모은책. 목차는 제1장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 새로운 정치엘리트?(김재철), 제2장 고이즈미 내각하의 정치구도: 정치엘리트의 배경 및 성향 분석(이면우), 제3장 러시아의 뉴리더 푸틴의 리더십과 국내외정책 연구(홍현익)로 구성.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일어업관계』(한국근대사자료집성5), 국사편찬위원회(2002년 12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근대사자료집성 시리즈 5권 한일어업관계 편

박승호, 『엔도 슈사쿠 연구』(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20), 보고사(2002년 12월)

엔도의 문학적 도정을 3기로 나누어 각 기별 대표작을 두 세 편씩 선정하여 분석.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연구자료들과 엔도의 연보 및 저작목록을 자료를 첨부.

야노 다카요시, 『한일고대혼인설화와 정조관』(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8), 보고사(2002년 12월)

한일 양국의 고대설화를 통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조의 기원을 밝히고 그 변천 과정을 고대 말까지 추적. 양 민족의 정조관념은 어떻게 생겨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문제를 취급. 신훈신화, 신훈가요, 애욕설화, 순결설화를 다룸.

야마모토 이치타 외, 오영환/박소영 等譯, 『일본 총리를 꿈꾸는 사람들: 일본을 이끌어야 할 차세대 정치인 29명의 일본 정치 개혁론』, 중앙M&B(2002년 12월)

1970년대나 1980년대 일본 성장 절정기에 자라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최고조일때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 초년생이었던 공통점을 지닌 ‘젊은 정치인’들인 저자들이 집필한 책. 이러한 저자적 특성에 따라 ‘2세정치인’들의 보수적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관을 중시하는 목소리 내포.

유옥희, 『바쇼 하이쿠의 세계』(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6), 보고사(2002년 12월)

바쇼에 대한 작가론적 연구 및 하이쿠 문학이론적

연구에 대한 글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여 엮음.

이수광, 『세상을 뒤바꾼 책사들의 이야기: 일본편』 (책사열전 시리즈 03), 일송-북(2002년 12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책략을 쓰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일본의 책사들과, 책략을 소개하고 있는 책. 책략뿐 아니라 책략가들을 통해 일본의 역사를 조망하게 하며 더불어 일본인들의 심층에 흐르는 심리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 수록. 대화개신(大化改新)을 이룬 쇼토쿠(聖德)태자를 비롯하여 가마쿠라 막부(幕府)를 연 미나모토 요리토모, 천하통일의 야망 오다 노부나가에서, 야인시대 하야시 계열 고다마 요시오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인물들과 책략을 수록.

임길채,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칠지도의 비밀 (상·중·하)』, 범우사(2002년 12월)

상권에서 저자는 일본의 천황을 백제 근초고왕의 왕손이라고 주장. 광개토왕 비문에 대한 오해들을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 시도. 광개토왕릉 비문 해석도 독특. 일본 학자들이 신묘년조의 『왜도해파백잔』(倭渡海破百殘)을 391년 왜가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쳐부수고, 다음 해 진사왕(385~392년 재위)을 제거한 후 아신왕(392~405년 재위)을 옹립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이 신묘년조 기사는 왜가 백제왕실 내에서 침류왕의 태자인 아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진사왕을 제거한 사실을 가리킨다는 주장. 중권에서는 『고사기』·『일본서기』에 기술된 신화. 전승을 본격적으로 고찰. 일본학자에가미氏가 발표한 기마민족설에서 고고학적인 연구와 함께 신화·전승으로부터의 접근. 하권에서는 『일본서기』의 기년조작으로 인한 가시의 편년 수정 문제 및 신공기의 대백제관계의 기사의 실체와 석산신궁의 칠지도와 닌토쿠천황에 대해 언급. 부록으로 일본 천황의 명칭 대조표 수록.

임길채,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칠지도의 비밀: 다 이제스트판』, 범우사(2002년 12월)

목차는 제1장 『일본고대국가의 형성과 칠지도의 비밀』을 저술한 동기, 제2장 소설 『잃어버린 왕국』에서 의혹을 제기한 비밀의 진상, 제3장 『임나일본부』 문제의 진정한 실체, 제4장 다시 음미해 보아야 할 선인들의 글로 구성. 부록으로 한일 고대역사의 복원 시리즈의 총 목차와 일본천황의 명칭대조표를 수록.

임성철, 『일본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7), 보고사(2002년 12월)

자연경물의 상징 및 8대집이나 만요수 등에 나타난 미적 표현의 의미를 정리.

탁성숙, 『문말표현에 관한 연구』(한국일본학협회 일본문화연구총서 19), 보고사(2002년 12월)

문의 말미에 오는 문말표현, 주로 술어부분을 중심으로 일본어와 한국어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저자의 문제 의식하에 지금까지 고찰한 논문을 정리.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국학자료원(2002년 12월)

1993년에 한일관계사 논저목록을 펴내었던 성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한일관계사분야의 입문서로서 도움이 되게끔 관련연구를 충실히 정리. 목차는 발간사, 고대의 회고와 전망, 조선전기의 회고와 전망, 조선후기의 회고와 전망, 개항기의 회고와 전망, 전후일본에서의 중세 일조관계사 연구, 일본에서의 근세 일조관계사의 회고와 전망, 종합토론으로 구성.

2003년 상반기(1월~6월) 국내일본관계서적 출판 동향

공의식, 『일본 현대정치 이해』, 세종출판사(2003년 1월)

최근 문학적 추세를 반영하여 일본정치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일본관련학과 또는 비전공 학생들이 현대 일본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개론서. 목차는 제1부 '55년체제'와 일본의 전후정치, 제2부 현대 일본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으로 구성.

마리우스 B. 쟈슨, 지명관 譯, 『일본과 동아시아 이웃 나라들: 과거에서 미래로』(한림신서 일본학총서 69), 소화(2003년 1월)

마리우스 쟈슨의 강연집. 동북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을 더듬고 21세기를 전망. 20세기 그릇된 일본의 태도가 어디서 왔는가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잘못된 행태를 뒤우치는 일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나아가 일본의 장래는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협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논증. 구성은 제1장 오키나와 — 비무장에서 무장으로, 제2장 한국 — 알려지지 않은 나라, 제3장 중국 — 전쟁에서 평화로, 제4장 일본과 세계로 짜임.

오와다 데쓰오 감수, 요시다 시게루 외 집필, 이연숙 譯, 『(사건과 에피소드로 보는) 도쿠가와 3대』, 청어람미디어(2003년 1월)

일본사에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면서도 다른 한편 많은 영웅이 살다간 시대였던 센고쿠 시대와 에도 시대 초기에 대한 재조명. 이에야스·히데타다·이에미쓰 이 세 영웅이 천하를 놓고 벌인 한판 승부를 짚막짚막한 사건과 에피소드로 구성한 이 책은 독

자들에게 난세를 헤쳐나간 영웅의 초상을 그리면서, 난세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흥미롭게 제시. 풍부한 자료 사진과 다양한 부록 수록이 특색. 260여 년의 에도 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00여 컷의 자료 사진을 비롯하여 일본사 주요 연표와 세키가하라 전투도, 도쿠가와 가계도와 고산케 가계도, 국현 대조표와 일본 지도, 주요 사건과 주요 인명을 찾아보기로 정리,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역사의 뒷이야기>로 묶어 제시.

윤건차, 이지원 譯,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 학사(2003년 1월)

재일조선인 2세인 저자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쓴 글을 모은 논문집. 주로 한국과 일본 양국과 관련된 근현대의 역사와 사상, 그리고 역사인식의 문제 및 사회과학적 의미에서의 근대성 및 식민성, 식민주의,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탈근대로 및 탈식민주의의 문제를 논의. 목차는 제1장 한국 현대사상과 '근대성' 담론, 제2장 근대 일본의 사상과 식민주의, 제3장 한일관계와 사상의 교착, 제4장 '재일동포'에 관한 단상으로 구성.

편집부 편, 『(요점)일본학 개론』, 예하미디어(2003년 1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일본학 전공자를 위한 요점사항을 서술.

편집부 편, 『(요점)일본전통문화론』, 예하미디어(2003년 1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일본 전통 문화론에 대한 요점사항을 서술.

미나미 히로시, 이관기 譯, 『일본인론(상·하)』(한림 신서 일본학총서 40, 41), 소화(2003년 2월)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까지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중심으로 기술한 일본인론. 메이지 유신과 일본인의 자아 의식을 비롯해 구화주의 대 일본주의, 종합적 일본인론, 일본문화와 일본인, 풍토와 국민성, 파시즘 일본인론, 점령기의 일본인론 등을 수록. 전2권.

박정의, 『일본의 사회와 문화』, 제이앤씨(J&C)(2003년 2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본과 일본사회, 그리고 일본인에 대해 개략적으로 다룬 책. 지리, 역사, 정치, 경제·산업, 사회, 문화, 생활, 관광 파트로 분류하여 제시.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이어령 라이브러리), 문학사상사(2003년 2월)

2차 대전 이후 패전국의 아픔을 딛고 오늘날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 일본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전제로 서술. 축소의 논리로 해부한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최고의 이론서. 축소지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일본의 고전, 역사, 현재의 과학기술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근본 개념으로 일본인의 의식을 분석. 제1장 일본 문화론의 출발점, 제2장 '축소지향'의 여섯 가지 모형, 제3장 자연물에 나타난 축소 문화, 제4장 인간과 사회에 나타난 축소 문화, 제5장 산업에 나타난 축소 문화, 제6장 '확대지향'의 문화와 오늘의 일본으로 구성.

일본문화연구회 편, 『일본과 일본문화』, 불이문화(2003년 2월)

일본문화에 대한 개략적·전반적인 서술을 중심으로 편성한 책. 지리와 정신세계, 생활과 풍속, 문학, 전통문화, 종교와 축제 파트로 분류 서술.

정수원, 『일본문화 이해와 연구』, 제이앤씨(J&C)(2003년 2월)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본의 국명부터 문화, 종교, 교육, 정치, 여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른 책. 최신 유행어와 젊은이들의 속어 등도 수록.

가토 요코, 박영준 譯,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태학사(2003년 3월)

근대 일본사를 점철한 여러 전쟁들에서 일본의 위정자와 국민들이 어떠한 논리로 그 전쟁을 정당화했는가에 대해 도쿄대학 교양학부에서 행한 강의 내용을 풀어 문고본의 형식으로 저술. "전쟁을 배우는 의미는 무엇인가?"로 시작하는 첫번째 강의에서부터 "왜 중일·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는가?"로 맺는 총 아홉편의 강의형식으로 구성. 근대 일본이 주도한 일련의 전쟁과정에서 전쟁을 긍정하는 논리들이 어떠한 필터장치를 통해 여과되고, 시기별로 재등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정면에서 제기하고, 이 문제를 통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박찬수, 『한국에서 쓴 일본 역사 이야기』, 솔(2003년 3월)

올바른 한일 관계사 이해를 위한 전제로써 일본사를 통론적으로 접근한 책.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서술한 점, 일본사의 통사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한·일 관계사에 큰 비중을 둘린 점 등이 특색.

1592년 조선과 일본의 전쟁 때 조선에 귀화한 사야가 (김충선으로 개명) 이야기, 1597년 2차 조·일 전쟁 때 일본에 끌려간 주자학자 강항의 이야기, 상대국을 이해해야 한다며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을 소개한 책 〈교린제정〉을 쓴 18세기 일본 학자 아메노모리 호슈 등 한·일 관계사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소개.

아사오 나오히로, 이계황 외 譯,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2003년 3월)

일본역사학계의 중진들이 균형감있는 관점과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해 새로 쓴 일본통사. 일본역사를 동아시아세계와 관련해 고찰하는 지역사의 입장을 취하는 점, 사회사와 문화사를 강조하는 점, 민중의 생활사를 비중있게 다루는 점 등이 특색. 지역사적 시점을 도입함으로써 일국사 중심의 일본사 서술에서 탈피하고 민중의 삶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사회사와 문화사를 강조하는 것은 최근 역사학의 다양한 시각과 경향, 방법론, 그리고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려는 의지를 표방.

야마다 쇼지, 정선태 譯, 『가네코 후미코: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 산처럼 (2003년 3월)

가네코 후미코는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였던 박열의 사상적 동지이자 연인이며 옥중에서 결혼한 부인. 식민지 청년 박열과의 사랑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가네코는 자기의 사상을 당당히 밝히는 법정 투쟁으로 일본 근대사상사에 기록. 조선인 강제연행과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사건 등을 연구했던 일본인 사학자 야마다 쇼지는 재판기록, 자서전과 당시의 신문·잡지 등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추적해 가네코의 짧은 생애를 재구성.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의 삶을 그린 평전으로 철저한 자료 조사와 객관적인 집필 자세 유지.

오노 고지, 이기완 譯, 『일본 현대 정치사 1945~1998: 안정과 변화의 기로에 선 일본정치』, 케이시 아카데미(2003년 3월)

1955년에 형성된 안정적 정치체제를 표현하는 55년 체제를 기축으로 하면서 전후 약 50년을 경과한 일본정치를 개관하려는데 있으며, 일본정치를 시기구분에 의거하여 서술. 커다란 흐름을 중점적으로 설명. 목차는 총론, 전후 부흥기, 55년 체제의 시기, 55년 체제로부터의 이행기, 새로운 시대로 — 기로에 선 일본정치 — 로 구성.

오에 겐자부로 저, 노영희 譯, 『소설의 방법』(한림신서 일본학총서 02), 소화(2003년 3월)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인도의 타고르에 이은 세번째 수상자인 겐자부로 스와이 한림원에서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으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당혹감 등 실존의 문제를 다루어왔다고 밝힌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 주제를 집요하게 천착해 왔다. 등단한 지 5년 후에 큰 아들이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것을 계기로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고 원폭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얻게 되었고 핵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1965년에 〈히로시마 노트〉를 발간했다.

이어령, 『일본문화와 상인정신』(이어령 라이브러리), 문학사상사(2003년 3월)

『축소지향의 일본인』저술에서 다루지 못했던 분야를 모아 정리한 책. 일본이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기업과, 일본열도를 울린 동화 〈한 그릇의 메밀국수〉를 분석. 이를 통해서 일본문화와 그들의 정신세계를 소개. 더불어 오늘날 일본인이 당면하게 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도 언급. 제1장 〈한 그릇 메밀국수〉의 일곱 가지 의미, 제2장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제3장 ‘포스트 모던’과 아시아 속의 일본으로 구성.

한일민족문제학회, 『재일조선인 그들은 누구인가』, 삼인(2003년 3월)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 이주되거나 경제적 이유로 도일을 택하게 된 조선인들이 8·15 해방 이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정착하게 된 재일조선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15개의 주제들을 각각 그 방면의 권위있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재일 조선인 연구자들의 글을 수록. 재일 조선인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접근. 목차는 제1장 재일 조선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2장 재일 조선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3장 재일 조선인의 교육과 문화의 발자취, 제4장 연구 상황: 일본 내 재일 조선인 문제 연구의 발자취으로 구성.

한보식 편, 『일본연역대전』, 영남대학교출판부(2003년 3월)

홍원탁, 『백제 왜: 고대 한일관계사』, 일지사(2003년 3월)

일반대중들이 보다 쉽게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재정리하고 해석. 각 페이지의 안쪽 구석에는 원전의 인용문들을 한문 그대로 그 출처를 밝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바깥쪽에는 한글 세대들이라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어체로 기술. 서술 방법은 연월일을 따라서 순서대로 기록하는 편년체를 채택.

고미 후미히코 등, 한은미 譯, 『(2천년 일본사를 만든)일본인 이야기』, 이순(2003년 4월)

일본 역사상 중요 인물 101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생애와 역사적인 가치를 소개한 책. 일본 학자 29명이 집필에 참여. 고대 히미코 천황에서부터 쇼와 천

황에 이르기까지 고대, 중세, 근세, 근대를 아우르는 인물들로 구성. 책 말미에는 일본사 연표와 각 시대별 지도가 수록.

김희영, 『이야기 일본사』, 청아(2003년 4월)

수많은 사건과 역사적 변천을 체계적으로 한권의 책으로 정리. 일본 역사의 대체적인 흐름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있게 파악하도록 구성. 신화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일본사의 사건과 역사적 변천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객관성 있는 시각으로 일본사를 바라보게끔 서술. 책 말미에 국현명 대조표 및 천황 계보 수록.

이상훈, 『일본의 정치과정』, 보고사(2003년 4월)

일본의 정치 경제시스템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다고 하는 80년대 일본에서 행정치행위자간의 대립과 타협을 분석. 현대일본정치에 있어서의 넓은 구조적 문맥을 의식하면서, 제2임조와 1983년 6월 28일에 발족한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 과정 및 답신의 법안 작성과정이라고 하는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유력한 행위자가 행정개혁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 목차는 제1장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에 관한 분석들, 제2장 일본의 정치과정을 규정하는 60년체제, 제3장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나카소네 수상과 자민당, 제4장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관료제, 제5장 행정개혁의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회당 총평, 제6장 정치환경의 변화와 행정개혁으로 구성.

조석제, 『다나카와 현대 일본정치』, 신지서원(2003년 4월)

편집부 편, 『일본학 개론』, 인시공(2003년 4월)

교재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과서의 완벽한 요약 정리와 보충설명과 출제유형에 따른 예상문제 수록.

박승무, 『선비와 사무라이』, 아침(2003년 5월)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100년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 푸른역사(2003년 5월)

19세기 최강대국이던 영국이 '문명의 떠오르는 별'인 일본과 '문명 퇴화의 본보기'인 한국에 내린 평가와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해 서술한 책. 저자는 조지 커즌(1859~1925), 버드 비숍(1831~1904) 등 두명의 영국출신 탐험가를 통해 이들이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두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담고 있어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를 생생하게 전달. 서양과 서양을 대신한 일본의 충격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근대성을 고찰하는데 있어, 흥미로운 비교사적 접근 시도. 목차는 제1장 문명과 야만의 담론, 제2장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 제3장 오만과 편견에 갇힌 인형의 집, 제4장 영원히 클 수 없는 어린아이의 나라, 제5장 흙모와 애증, 경탄할 만한 부의 제국, 제6장 제국에 이르는 두 개의 길로 구성.

아미노 요시히코, 박훈 譯, 『일본이란 무엇인가』, 창작과 비평사(2003년 5월)

일본열도에서 수십만년 전부터 영위해온 인류사회의 역사 가운데 '일본국'의 위치를 설정하고, 약 1300년에 걸친 '일본국'의 역사를 철저하게 총괄하여 그 실태를 조망. 언제부터 일본이라는 국호가 쓰였으며, 왜 일본이었는지를 탐구하고, 일본의 역사와 문화, 삶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 제1장 '일본론'의 현재, 제2장 일본열도의 실상, 아시아대륙 동쪽의 가교, 제3장 열도사회와 일본국, 제4장 '미즈호노쿠니 일본'의 허상, 제5장 '일본론'의 전망으로 구성.

일철기술정보센터 편, 조양욱 譯, 『일본 핸드북』, 다락원(2003년 5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뽑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군더더기 없는 일본 안내서. 일본의 지리와 역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음식. 건축 등 일본 관련 지식을 총망라. 총8장으로 구성.

정인문, 『1910~20년대의 한일 근대문학 교류사』, 제이앤씨(J&C)(2003년 5월)

근대문학의 대표적 작가 김동인을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 방법 중 영향론의 시점으로 한일 근대문학 교류사를 비교분석. 목차는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문학 수용배경, 제3장 일본 근대문학 수용의 양상, 제4장 비교결과의 분석과 종합, 제5장 결론으로 구성.

홍윤식 편, 『일본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일본학총서 03), 솔(2003년 5월)

일본의 고대 문화의 뿌리에 미친 한국의 고대 문화의 유입 과정을 실증학적으로 연구한 글을 담았다. 일본 불교. 유학. 신화. 건축. 음악. 연극. 미술 등의 각 분야 전공자들이 일본 문화의 형성기에 우리 문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

목차는 제1장 고대 일본 불교에 미친 삼국 불교의 역할(홍윤식), 제2장 일본 유학을 통해 본 일본 문화의 뿌리(이기동), 제3장 신화적 측면에서 본 일본 문화(황패강), 제4장 건축적 측면에서 본 일본 문화(김정기), 제5장 고대 일본 음악의 형성과 삼국의 음악(강태구), 제6장 일본 문화의 뿌리로서의 한국 문화: 민속과 연극을 중심으로(장한기), 제7장 일본 전래 불교 공예품을 통해 바라본 7.8세기 일본과 신라의 교류(가다와 사다무), 제8장 일본 호류사 금당벽화에 나타난 한국 문화의 영향(홍윤식)으로 구성.

칸노 카쿠묘, 이이화 譯, 『어머니가 없는 나라 일본』, 집문당(2003년 7월)

사카이 나오키, 이득재 譯, 『사산되는 일본어 일본인』, 문화과학사(2003년 7월)

사카이 나오키의 논문집. 인종주의 문제, 일본 내셔널리즘과 미국 내셔널리즘의 공모 문제를 다룸. 일본인의 범위를 넘어서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의 문제를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고찰. 구성은 1장 근대비판: 중단되 기도 — 일본의 1930년대, 2장 국문공동체의 ‘속’과 ‘겉’ — 마루야마 마사오와 충성, 3장 국제사회 속의 일본국 헌법 — 사회성의 비유로서의 “이민”과 헌법, 4장 편재하는 국가 — 두 개의 부정: 『노노보이』를 읽는다, 5장 역사라는 이야기의 정치적 기능 — 천황제와 근대, 6장 사산되는 일본어 · 일본인 — 일본어라는 통일체의 제작을 둘러싼 “반”역사적 고찰, 7장 ‘서양에서의 회귀’와 인종주의 — 현대보수주의와 지식인으로 짜여짐.

편집부 편, 『(요점)현대일본정치의 이해』, 예하미디어(2003년 7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현대 일본 정치 이해를 위한 요점 사항을 서술.

편집부 편, 『(요점)일본경제론』, 예하미디어(2003년 7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일본경제론의 핵심 요점사항을 서술.

편집부 편, 『(요점)일본대중문화론』, 예하미디어(2003년 7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일본대중문화론의 핵심 요점사항을 서술.

편집부 편, 『(요점)일본고중세사』, 예하미디어(2003년 7월)

방송대학 강의를 위한 교재. 일본고중세사의 핵심 요점사항을 서술.

사오도메 가쓰모토, 지명관 譯, 『전쟁 속의 여인들』(한림신서 일본학총서 72), 소화(2003년 8월)

여성을 눈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실상을 증언. 15명의 여성들로부터 전쟁에 관한 증언을 통해 피폭과 전쟁터, 피난, 공습과 난징대학살 등 전쟁의 참화를 실제로 겪은 일본 및 외국의 여성들, 그리고 현재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군사력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 제시.

●문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miyabi@snu.ac.kr

Homepage <http://gsis.snu.ac.kr/japan>